

BP, 미국에서 불량 휘발유 리콜

시동불량에 엔진고장 유발할 수 있어 ... 2만5000갤런 추정

정유기업 BP(British Petroleum)가 미국 인디애나에서 판매된 불량 휘발유에 대해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8월21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BP는 “인디애나 북서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된 자동차용 무연 휘발유(Unleaded Regular Gasoline)가 시동 불량과 엔진 고장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리콜 사유를 밝혔다.

BP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인디애나 휘팅 정유공장의 저장탱크에서 각 주유소로 배송된 BP 휘발유를 주유한 자동차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8월20일 인디애나의 자동차 대리점과 정비소로 시동장치에 문제가 생긴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드러났다.

메리빌 소재 자동차 대리점은 “8월20일 오전에만 시동불량 수리 요청이 30건, 견인 서비스 신청이 8건에 달했다”며 “8월21일에는 관련 문의전화만 150통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BP는 해당 휘발유 양을 약 2만5000갤런으로 추정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휘발유에 포함된 수분의 양, 휘발유 청정제(Gasoline Detergent Additive) 과다 첨가 등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BP 대변인은 “문제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관련 휘발유의 총량을 가늠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일 BP에서 불량 휘발유를 주유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유소 혹은 BP로 즉각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2>